

# 설맞은 환우에게 전한 따뜻한 자비

## 광주생명나눔, 무각사 등 병원 복지관에 위문품 전달

설을 앞두고 호남지역에서 환우를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와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은 2월 10일 화순전대병원(병원장 범희승)에서 장기치료 중인 500여 환자와 가족에게 설 떡국떡을 전달했다.

화순전대병원에는 소아암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질환으로 입증을 앞둔 호스피스 대상자도 다수 입원해 있는 등 생사를 넘나들며 힘든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현지 스님을 비롯해 광주생명나눔 이사인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일명 스님(금전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과 일장 스님, 1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실에 모여 간단한 행사 후 떡국을 전달받고, 손수레에 포장된 떡국떡을 싣고 200여 병실을 방문해 떡을 전달했다.

전달에 앞서 현지 스님은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 중 일부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다. 명절을 맞아 힘든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작은 나눔을 전하고 싶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생명나눔은 현재 화순전대병원의 소아암 환우들에게 치료비와



화순전대병원 봉사자 앞에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화순 유마사 사부대중.



오른쪽부터 무각사 성효스님·자인원 원장 수현 스님.

환우 정서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화순 유마사도 화순전대병원에서 매주 호스피스 상담을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9일 광주생명나눔과 유마사는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을 찾아 병원 대합실에서 투병중인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무료전통차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해 온 무료봉사는는 광주생명나눔 차봉사팀(팀장 문금자) 회원 9명이

고정 참여해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500여 잔의 황차, 녹차, 홍차, 꽃차 등 전통차를 봉사하고 있다.

문금자 팀장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천연목욕제 '곱단지'로 널리 알려진 곡성 무각사 성효 스님은 전남 강진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자인원(원장 수현)에 천연목욕제품 20세트와 쌀 8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성효 스님이 자신의 부양도 받지 못한 채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피부질환 개선을 돕고자 마련했다. 스님은 이전부터 불교복지시설에 정기적 물품후원을 해왔다.

전달식에서 성효 스님은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늘고 있어 감사하다"며 "승가의 일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작은 길이다"라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수현 스님은 감사의 말을 통해 "한국불교는 어려운 시절 쌀자루를 들고 절에 와 기도했던 어른들이 큰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연로해 생의 마지막 가시는 날을 부처님 품안에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를 믿었던 어른들이 다 종교 시설에서 힘들어했지만, 불교시설에서는 큰 안정감을 느꼈다. 많은 곳에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은

## 발달장애 학생들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관계자 200여 명 동참 선운사, 세미나 개최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은 2월 6-7일 선운사 세미나실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독립생활과 취업호조를 위한 한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TIL 전환교육연구소, 미국 One of Us Intl Inc 등이 공동주최하고 선운사와 전북교육청이 후원해 전국의 특수학교 교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부모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또, 웹플스레이를 겸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월 6-7일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모습.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사찰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문화, 참선수행,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찰음식 등이 발달장애아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라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일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순천 보승사 확장 이전

도심 속 작은 불교신행공공체를 건설하기 위한 포교당이 순천에 개설됐다.

순천 보승사주지 영도사는 2월 6일 순천 연향동으로 법당을 이전하고, 법당 이전 개원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은사 종국 스님, 순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해인 스님, 용화사 상주 스님을 비롯해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점안식은 부처님이 부처·지혜·진리·법의 눈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증생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며 "보승사를 찾는 대중이 기도정진을 통

해 거룩한 부처님의 인연을 깨닫고 부처님 가르침이 순천의 모든 시민들에게 퍼져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는 낙인음성 가야금병창 보존회에서 25현 경음악과 가야금 병창(사철사, 심청가 중 화초타령), 판소리 등을 선보였다.

한편, 보승사는 2003년에 지하층에 개원했으나 장소가 협소해 신행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이전·개원한 신행공간에는 30평에 달하는 법당과 요사공간으로 이명숙 보살의 시주와 신도들의 십시일반으로 이뤄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은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불자들에게 찬불가 지도하는 송태균 포교사

## “찬불가는 신심으로 부르는 노래”

이웃종교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예식장에서 찬불가를 부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자들의 장례에서는 스님이나 염불봉사자의 염불 소리는 들려도 찬불가를 듣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가운데 원주 위봉사 일요법회 회원들은 신도들이 상을 당했을 경우 장례식장을 찾아 염불과 '조가' '빛으로 돌아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찬불가 연구소도 운영하는 송태균 포교사는 찬불가를 부르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투철한 신심과 이론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지도할 수 있어야만 찬불가 속에 녹아있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화엄불교대학에서 불교 교리



송태균 포교사

소서' 등 찬불가를 불러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염불 외에 조가가 불려지는데는 송태균 포교사의 숨은 원력이 숨어 있다.

전북포교사단 음성포교팀을 이끄는 송 포교사는 서울대 기악과 졸업 후 서울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던 전문 음악인이다. 전주 시립교향악단 창단멤버로 10여 년 간 활동했던 그는 29년간 전주 완산고 음악교사, 군산대 목원대 외대교수로 활동했다.

송태균 포교사는 매주 자신이 운영중인 페다고지 음악학원에서 대성월 보살과 함께 불자들을 대상으로 찬불가와 찬불가 속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송 포교사는 30년 넘는 전문 음악가이지만 지금도 찬불가를 부른다 목이 메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짧은 가사와 곡 속에 스며들어 그 의미를 되새기다

를 공부하고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송태균 포교사가 자신의 포교활동 영역으로 음성포교를 선택해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 찬불가를 부르는 이유이다.

송 포교사는 "이웃종교인이 사찰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합창단 지휘자는 단순히 테크닉만 전수할 뿐이다. 찬불가는 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심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강조했다.

송태균 포교사는 현재 전국을 다니며 찬불가를 수집하고 있다. 30년 음악전문가이지만 찬불가 작곡자·작사자를 만나 찬불가를 만들 때의 마음가짐 등을 교류하는 중이다.

송 포교사는 "우리 전통음악으로 된 찬불가를 보급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주사**

# 왕초보의

## 불교 공부 첫 걸음

###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04쪽 / 값9,500원

###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리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회와 불교,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기도 백팔만년, 음 마니 반배 음,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윤정화·일지 지음 / 46만 양장 / 352쪽 / 값9,500원

###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만 양장 / 320쪽 / 값9,500원

###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식 지음 / 46만 양장 / 278쪽 / 값9,500원

###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만 양장 / 320쪽 / 값9,500원

### 왕초보, 선수경박사 되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선수경이다. 그 선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선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28쪽 / 값9,500원

###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식 지음 / 46만 양장 / 278쪽 / 값9,500원

### 왕초보, 선수경박사 되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선수경이다. 그 선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선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28쪽 / 값9,500원

###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식 지음 / 46만 양장 / 278쪽 / 값9,500원